30개월→10개월…신차 출고 기간 확 줄었다

기아 K8, 전월비 1개월 빨라진 1.5개월…하이브리드 1년
반도체 수급난 정상화·경기침체 장기화에 수요 위축 영향

한때 30개월까지 기다려야 받을 수 있는 등 소비자의 애를 태웠던 신차 출고 기간이 급격히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 완화로 생산이 정상화된 것도 이유지만, 최근 고금리 여파로 차 구매 계약을 취소하는 등 신규 수요 부진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13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현대자동차와 기아, 제네시스 브랜드의 경우 이번 달 구매고객이 차량을 인도받기까지 걸리는 기간은 지난달에 비해 1개월에서 많게는 8개월까지 짧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기아의 플래그십 세단 K8의 가솔린 2.5, 3.5 모델 모두 지난달 대비 1개월가량 출고 대기 기간이 줄어 1.5개월~2개월이면 신차를 받아볼 수 있게 됐다.

현대차의 아반떼는 지난달 인도 기간이 6개월이었던 것과 달리 이달 5개월로 1개월이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또 대표 세단으로 꼽히는 쏘나타 1.6 가솔린 모델도 3개월에서 2개월로 1개월 줄었다.

가솔린 모델에 비해 하이브리드 모델은 차량 인도 기간이 더 길어 1년이 지나도 새 차를 받지 못하는 사태가 속출했었다. 하지만 아반떼 하이브리드 모델의 경우 지난달 인도 기간이 16개월에서 12개월로 한 달새 4개월이나 감소하면서 1년 안에 받아볼 수 있게 됐다.

최근 7세대 완전변경 모델이 출시된 현대차의 세단 그랜저도 2.5 가솔린, 3.5 가솔린, LPi, 하이브리드모델 모두 1~4개월씩 출고 기간이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차박'의 인기와 '패밀리카'로 각광 받으면서 세단보다 인기가 높아진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역시 출고 기간 감축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현대차의 중형 SUV 투싼은 가솔린 모델이 지난달 9개월에서 5개월로 짧아졌고, 디젤은 9개월에서 5개월로 4개월 줄었다. 하이브리드 모델로 13개월이었던 인도 기간이 10개월로 3개월 감소했다. 또 다른 SUV 싼타페도 가솔린 모델이 6개월에서 5개월로 1개월 줄었다.

기아의 대표적인 SUV 모델인 스포티지와 쏘렌토 가솔린 모델도 각각 1개월씩 대기가 줄어 계약 후 7개월, 4개월이면 차량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때 30개월까지 기다려야 했었던 제네시스의 GV80 가솔린 2.5T 모델은 지난달 18개월까지 인도 기간이 줄었다가, 이달에는 10개월로 8개월이나 빨라졌다. 디젤과 가솔린 3.5T 모델도 각각 5개월, 6개월 줄었으며, 현대차의 전기차 모델 아이오닉6도 16개월에서 13개월로 감소했다.

애초 신차 출고 대기 기간이 급격히 늘어났던 것은 반도체 수급난으로 인해 생산에 차질이 빚어졌던 게 원인이었다. 하지만 반도체 수급난이 정상화되면서 신차 공급 역시 정상화됨에 따라 신차 출고 기간이 줄어들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최근 극심한 경기침체 역시 신차 출고 기간 감소에 한몫했다는 분석이다. 경기침체가 장기화하고 고금리 현상이 계속되면서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는 등 수요 위축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이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 발생 당시엔 금리가 낮은 데다, 보복소비 등으로 신차 수요가 많았지만 최근엔 경기침체로 소비심리가 크게 위축됐다"며 "아무래도 고금리와 경기침체로 인한 영향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기웅 기자 pboxer@

반도체 수급난으로 1년 넘게 기다려야 받을 수 있던 신차의 출고 기간이 짧아졌다. 사진은 기아의 스포티지로, 지난달 8개월이 소요됐던 스포티지 가솔린 모델은 1개월 줄어 계약 후 7개월이면 차량을 받을 수 있다.

벤츠 어린이 환경교육 체험 캠프 성료 메르세데스-벤츠 사회공헌위원회는 최근 사회복지법인 아이들과미래재단과 함께 어린이 환경교육 체험 캠프 '그린플러스 빌리지(GREEN+Village)'를 진행했다. '지구의 온도를 낮출 다양한 체험활동'을 주제로 열린 이번 캠프에는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 350여명이 참여해 스스로 기후 행동을 실천하고 이에 대한 성취감을 느껴보는 기회를 가졌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제공〉

기아 노사, 중대재해 예방 힘모은다

안전보건 선포식 개최

기아 노사가 중대재해 제로(ZERO) 사업장 구축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선포했다.

기아 노사는 지난 10일 오토랜드 광명에서 기아 대표이사 최준영 부사장, 전국금속노조 기아자동차지부 홍진성 지부장 및 각 오토랜드와 판매, 정비 등 5개 부문의 노사대표가 참여한 가운데 중대재해 제로(ZERO) 사업장 구축을 위한 노사공동 안전보건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아 노사는 '2023년 노사공동 안전보건 선포문'을 공개하고 안전은 기아의 핵심 가치이자 지켜야 할 의무로 모든 구성원이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노사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기아 10대 안전수칙'의 해설서를 배포해 모든 구성원이 안전수칙을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기아 10대 안전수칙은 ▲규정 보호구 지급 및 착용 ▲안전 방호장치 임의 해제·우회 금지 ▲안전벨트 착용, 규정 속도 준수 ▲무인공정 임의출입 금지, 출입시 작업수칙 준수 ▲중량물 인양 작업 시 하부 출입 금지 ▲밀폐공간 가스농도 측정 승인 후 출입 ▲전기취급시 전원차단 ▲지정구역 외 금연 ▲작업 전 사전 점검, 허가제 준수 ▲위험행위 요소 발견 시 선조치 후 즉시 보고 등이다. 현장에서 간과하기 쉽지만 사고 발생시 중대재해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은 위험들을 차단하기 위한 사항이다.

기아 관계자는 "이번 '노사공동 안전보건 선포식'은 노사가 안전보건에 대한 인식을 확고히 다져 더 안전한 기아로 나아가는데 협력하기로 다짐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기아는 지속적인 투자와 안전신기술 개발로 기아만의 최적화된 안전체계를 구축해 협력사를 포함한 모든 구성원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아는 노사 대표가 참석한 '노사공동 안전보건 선포식'을 시작으로 각 오토랜드 및 서비스센터 등에서 자체 선포식을 개최해 전 구성원의 안전에 대한 의식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노사공동 현장 점검 활동을 운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안전관리에 힘쓸 예정이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

최준영(왼쪽) 부사장과 홍진성 지부장이 '2023 안전보건 선포식' 이후 노사가 함께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어가기로 다짐하고 있다.

고객 의견 반영 강화…기아 '2024 니로 플러스' 출시

기아는 목적 기반 모빌리티(PBV) '니로 플러스'의 연식변경 모델 '더(The) 2024 니로 플러스〈사진〉'를 출시했다고 13일 밝혔다.

1세대 니로 EV를 기반으로 개발된 니로 플러스는 지난해 5월 말 출시와 함께 기아의 본격적인 PBV 사업의 출발을 알린 모델이다. 본격적인 출고가 시작된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동안 약 4700대가 판매되는 등 인기를 얻고 있다.

기아는 니로 플러스를 구매한 고객의 의견을 반영해 더 2024 니로 플러스를 사용 목적에 더욱 적합하도록 일부 사양을 기본화하고 신규사양을 추가했다.

2024 니로 플러스는 ▲크루즈 컨트롤 ▲전자식 룸미러(ECM) ▲하이패스 자동결제 시스템 등 주행 편의성을 높여줄 사양을 택시 모델과 업무용 모델 모두에 기본 적용했다.

또 택시 모델은 2열 승하차가 잦고 승차 시간이 길지 않은 특성을 고려, 2열 열선 시트에 20분 후 자동 꺼짐 기능을 적용해 불필요한 전력 소모를 줄였고 업무용 모델에는 2열 센터 암레스트와 동승석 세이프티 파워윈도우를 추가해 다양한 상황에서의 사용 편의성을 높였다.

2024 니로 플러스의 가격은 택시 모델이 라이트 트림 4600만원, 에어 트림 4750만원, 업무용 모델은 에어 트림 4755만원, 어스 트림 4850만원이다.

한편 기아는 전기차 개인택시 고객을 위한 '기아 EV멤버스 택시'를 운영하고 있다. 기아 EV멤버스 택시는 국내 최초의 개인택시 고객 전용 멤버십으로 기아 전기차 구매고객 중 개인택시를 운영 중인 사업자에게 카카오T 블루 가입비, 기사식당 쿠폰, 택시 전용 용품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

초대형 픽업트럭 'GMC 시에라' 국내 출시

드날리 트림 5인승 전장 5890㎜…9330만원부터

제너럴 모터스(GM)가 프리미엄 픽업·스포츠유틸리티차(SUV) 브랜드 'GMC'의 국내 출범과 함께 첫 번째 모델인 초대형 픽업트럭 '시에라'(Sierra·사진)를 출시했다.

13일 GM에 따르면 시에라는 1987년 출시 이후 지금까지 5세대를 거친 GMC의 대표 모델로 국내에는 최초로 정식 출시되는 풀사이즈 픽업트럭이다.

국내 출시되는 시에라는 최고급 사양인 드날리 트림의 5인승 크루캡 숏박스 모델이며, 전장 5890㎜, 전폭 2065㎜, 전고 1950㎜다.

아발론 화이트 펄, 턱시도 블랙, 퍼시픽 블루, 볼케이노 레드, 러쉬 그레이 등 총 5가지 외장 색상으로 출시, 인테리어 컬러는 젯 블랙과 브라운 스톤 등 2가지로 준비됐다.

시에라의 실내 공간은 초대형 픽업트럭답게 압도적인 공간감을 자랑한다. 2열 레그룸의 크기는 1102㎜로 1열에 레그룸에 준하는 정도의 안락한 공간을 제공, 최고의 공간 활용성을 제공하기 위해 넓고 깊은 IP어퍼 글로브 박스와 센터 콘솔, 2열 시트백 및 하단의 히든 스토리지 등 탑승자를 위한 다양한 수납공간도 마련됐다.

최대 3945㎏에 달하는 견인력도 갖췄고, 기본으로 제공되는 트레일러 히치 리시버 및 커넥터, 히치 라이트, 트레일러 어시스트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손쉬운 트레일러 체결도 지원한다.

엔진은 6.2ℓ V8 직분사 가솔린 엔진을 탑재해 최고출력 426마력, 최대토크 63.6㎏·m의 성능을 발휘하고, 10단 자동변속기와 GM의 독자 기술인 다이내믹 퓨얼 매니지먼트(Dynamic Fuel Management) 시스템을 통해 연료 효율을 높였다.

시에라의 가격은 드날리 트림이 9330만원으로, GMC 시에라의 첫 한국 판매를 기념해 준비된 드날리-X 스페셜 에디션은 9500만원이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

현대차그룹, 美 품질조사 2년 연속 1위 달성

제이디파워 발표

현대자동차그룹이 미국 최고 권위의 품질조사에서 자동차그룹 기준 2년 연속 1위를 달성했다.

13일 현대차그룹에 따르면 미국 시장조사업체 제이디파워(J.D.Power)가 지난 9일(현지시간) 발표한 '2023년 내구품질조사(VDS)'에서 고급브랜드를 포함한 전체 31개 브랜드 중 제네시스가 2위(144점), 기아가 3위(152점), 현대차가 8위(170점)로 모두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이에 따라 작년에 이어 글로벌 16개 자동차 그룹사 중 가장 우수한 종합 성적을 거뒀다.

특히 기아는 3년 연속 일반브랜드 1위에 오르며 '최우수 일반 브랜드상(Mass Market Nameplate)'을 받았다. 또 제네시스는 13개 고급브랜드 중 2위, 현대차는 18개 일반브랜드 중 6위를 기록했다.

이로써 현대차그룹은 글로벌 16개 자동차그룹 가운데 가장 낮은 평균점수인 160점을 기록해 1위에 올랐다.

이와 함께 차종별로 ▲기아 K3(현지명 포르테)는 준중형차(Compact Car) ▲기아 K5 (현지명 옵티마)는 중형차(Midsize Car) ▲기아 스포티지는 준중형 SUV(Compact SUV) 차급에서 각각 1위에 올라 총 3개 차종이 '최우수 품질상(Segment Winner)'을 수상했다.

이어 ▲현대차 아반떼(현지명 엘란트라)는 준중형차(Compact Car) ▲현대차 싼타페는 중형 SUV(Midsize SUV) ▲기아 쏘렌토는 어퍼미드 SUV(Upper Midsize SUV) ▲기아 카니발(현지명 세도나)는 미니밴(Minivan) 차급에서 우수 품질상을 받았다.

내구품질조사는 차량 구입 후 3년이 지난 고객들을 대상으로 184개 항목에 대한 내구품질 만족도를 조사한 뒤, 100대당 불만 건수를 집계한다. 점수가 낮을수록 품질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신차품질조사(IQS, Initial Quality Study)와 함께 자동차 품질 평가의 양대 척도로 여겨지는 내구품질조사에서 현대차그룹이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결과는 앞으로 브랜드 이미지 제고와 판매 확대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